



딱 걸렸네

6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2013 프로야구 롯데 대 기아 경기. 5회초 2사 1루 기아 김선빈이 2루 도루를 시도하다 롯데 정훈에게 태그아웃되고 있다. /연합뉴스

KIA 6위 추락, 어쩌다 이지경까지...



롯데전 공·수·지략 대결 모두 밀리며 3대 13 대패

찬스맨 병살타, 수비에선 잦은 실책 '총체적 난국'

‘호랑이 군단’의 무기력한 패배가 계속됐다.

KIA 타이거즈가 6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공·수·지략 대결에서 모두 밀리며 3-13 대패를 당했다. 전날 3-6패배를 당하며 롯데에 워닝 시리즈를 내준 KIA의 6월 전적은 1승4패. 이날 두산을 상대로 6-5 승리를 거둔 LG와 자리를 바꾸며 6위로 내려앉았다.

외국인 투수 소사의 ‘갑소사’ 버전이 반복됐다.

소사가 1-0으로 앞선 2회에서 김대우·신본기·정훈에게 연달아 안타를 내주며 동점을 허용했다. 3회에도 연속 안타를 얻어 맞으며 자존심을 구겼다.

이승화의 내야안타에 이어 손아섭·강민호·강민호·박종윤까지 모두 안타로 내보내면서 1-3이 됐다. 전준우의 땅볼에 이어 김대우를 상대로 세 번째 탈삼진을 뽑아내며

간신히 투아웃을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1루수 최희섭의 빠아픈 실책이 나왔다.

최희섭이 신본기의 땅볼 타구를 다리 사이로 빠트리면서 두 명의 주자가 모두 홈을 밟았다. 9번 타자 정훈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면서 점수는 1-6까지 벌어졌다.

결국 소사는 4회 2사에서 강민호를 볼넷으로 내보낸 뒤 조기 강판됐다. 3.2이닝 8피안타 2사사구 3탈삼진 6실점(3자책), 시즌 평균자책점은 5.32로 뛰어올랐다.

소사의 난조와 함께 흔들리던 옥스포밍의 초반 공략에 실패한 타선도 대패를 자초했다.

1회 1사에서 김선빈이 중전안타에 이어 도루로 2루에 진루했지만 김주찬이 중견수 플라이로 물러났다. 나지완이 펜스를 맞히는 2루타로 김선빈을 홈으로 불러들이며 선취점을 가져왔지만 최희섭의 볼넷에 이어 이범호의 방망이가 헛돌면서 추가 득점에

실패했다.

2회에도 안치홍과 차일목의 연속 안타로 무사 1·2루의 기회를 잡았지만 번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 박기남의 번트 타구가 포수 강민호 바로 앞에 떨어지면서 3루 승부가 이어졌고, 타자 주자까지 아웃이 되면서 공격의 분위기가 식었다. 이후 2사 2루에서 이용규의 땅볼과 이용규의 삼진이 나오면서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나면서 이닝이 마무리됐다.

1-6으로 뒤지던 4회 무사 2·3루의 찬스에서 2점을 뽑는데 만족하며 롯데에 승기를 내줬다.

이범호의 중전안타에 이어 안치홍의 타구가 좌익수상을 타고 흐르면서 무사 2·3루, 차일목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보냈지만 박기남의 땅볼과 이용규의 삼진이 나오면서 2점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소사에 이어 투입된 볼펜진도 모두 실점

프로야구 중간순위 (6월 6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승차
1 넥센	48	31	16	1	0.660	0.0
2 삼성	48	29	18	1	0.617	2.0
3 롯데	49	25	22	2	0.532	5.5
4 LG	50	26	24	0	0.520	6.5
5 두산	50	25	24	1	0.510	7.0
6 KIA	49	24	24	1	0.500	7.5
7 SK	46	20	25	1	0.444	10.0
8 NC	50	19	29	2	0.396	12.5
9 한화	48	15	32	1	0.319	16.0

6일 경기기록

팀	1	2	3	4	5	6	7	8	9	총
KIA	1	0	0	2	0	0	0	0	0	3
롯데	0	1	5	0	0	1	4	2	X	13

패:소사 승:옥스포밍

을 기록하면서 롯데에 완패를 당했다.

임준섭이 2.1이닝 1피안타 2사사구 1탈삼진 1실점, 1이닝을 던진 한승혁과 박지훈도 각각 4점, 2점을 내주면서 롯데의 몰 시즌 최다 득점의 희생양이 됐다.

KIA는 사발까지 감행했지만 여전히 타선과 수비의 허술함, 지난해 같지 않은 서재응·소사의 피칭 그리고 벤치의 전략 부재 속에 6위까지 추락하며 팬들을 실망시켰다.

/사직=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동성고 36년만에 황금사자기 품을까

고교야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내일 마산서 마산고와 준결승

광주 동성고가 36년 만의 황금사자기 재탈환을 노린다.

동성고가 8일 오후 2시30분 창원 마산구장에서 고교야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겸 제67회 황금사자기 준결승 경기를 치른다. 상대는 인천고를 꺾고 4강에 합류한 마산고.

앞서 광주일고·효천고·군산상고가 탈락하면서 동성고는 전라권 유일의 생존팀이다.

동성고는 4승3패를 거두며 지역에선 4위로 왕중왕전 마지막 티켓을 따냈지만 공수에서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준결

승 무대까지 진출했다. 경북고와의 8강 대결에서는 9회말 1사 1·2루에서 터진 김태선의 끝내기 안타로 6-5 승리를 거두며 선수단 분위기에 물이 올랐다.

마산고를 꺾는다면 지난 1977년 우승 이후 36년 만의 황금사자기 패권에 도전하게 된다. 동성고는 광주상고 시절인 1977년 인천고를 3-2로 꺾고 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린 적이 있다.

결승전 남은 한 장의 티켓의 향방은 덕수고와 경기고의 대결로 정해진다.

우승팀을 결정하는 대회 마지막 경기는 9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된다. 동성고와 마산고의 준결승전과 대회 결승전은 채널 A를 통해 생중계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부천에 종료 10초전 동점골 허용

K리그 챌린지.. 6경기 무패 행진

광주 FC가 마지막 10초를 지키지 못하면서 승점 1점에 만족했다.

광주 FC가 6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부천 FC와의 K리그 챌린지 12라운드 경기에서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6경기 연속 무패행진에는 성공했지만 경기 종료 직전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시즌 4승에는 실패했다.

4위 광주(3승3무5패·승점 12)와 3위(5승4무2패·승점 19) 부천의 맞대결은 치열한 공방전이었다.

양팀은 거세게 상대 골문을 겨냥하면서 선제골을 가져가기 위한 기싸움을 벌였다. 하지만 골문을 여는 데 실패한 양팀은 0-0에서 후반전을 맞았다.

후반에도 양팀은 공격이 수위를 높이면서 빠른 흐름으로 경기를 풀어나갔다.

분위기를 전환을 위한 광주 여범규 감독의 교체 카드가 적중했다. 후반 20분 김준업을 대신해 박현을 투입한 지 7분 만에 광주의

득점포가 가동됐다.

후반 27분 골 에리어 왼쪽에 있던 박현이 김호남이 넘겨준 공을 헤딩슛으로 연결하면서 골문을 흔들었다. 박현의 몰 시즌 마수골이 골.

선제골을 넣으며 승기를 잡은 광주는 부천의 공세를 차단하며 승리를 눈앞에 두는 듯했다. 그러나 후반 추가시간에 찾아온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후반 50분 부천 노재호의 머리를 떠난 공이 골문으로 빨려들면서 1-1 동점이 됐다. 골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은 승패를 가리지 못했다.

아쉬움을 남기기는 했지만 광주는 연속 무패 기록을 '6'으로 늘렸다.

한편 광주는 9일 오후 7시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K리그 챌린지 13라운드 경기에서 경찰축구단을 상대로 승점 더하기를 나선다. 앞선 4월 28일 홈에서 가진 맞대결에서는 광주가 0-2로 패했지만 최근 분위기는 광주가 앞서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① 덕아웃 말말말

▲저 어떻게 하죠? =투수 박지훈, 사발머리가 어색하다며, 6일 1군에 합류한 박지훈은 경기에 앞서 다른 KIA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사발했다.

▲나에게 실망했어요=5일 경기에서 홈런성 2루타를 때려냈던 나지완, 홈런인 줄 알았는데 담장을 넘기지 못했다면서.

▲안 던지던 것 던진다고 생각했지=5일 경기 끝난 후 증계를 통해 제자 오승환

1군 합류한 박지훈, 사발머리 어색하다며 “저 어떻게 하죠?”

의 경기를 봤다는 선동열 감독, 스카우트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평소 구사하지 않던 체인지업 계열 공을 하나 던지더라면서.

▲먼저 가겠습니다=백팩 차림으로 덕아웃에 나타난 양현종, 주말 넥센 원정 등판을 위해 미리 서울로 간다면서.

▲지발적으로 갔잖아=6일 77년생 동갑

내기 KIA 서재응·두산 김선우·롯데 장성호가 나란히 엔트리에서 말소했다는 얘기를 들은 선동열 감독, 서재응은 5일 롯데전에서 3.2이닝 8피안타 4실점을 기록하는 등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2군행을 자처했다. 5일 친정팀 KIA를 상대로 멀티히트를 기록했던 롯데 장성호는 슬라이딩을 하다 팔꿈치 부상을 당하면서 1군 복귀

하루 만에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더와=훈련을 끝내고 들어오던 앤서니, 날씨가 덥다면서.

▲옥스포밍은 호주 국기를 달았습다=롯데 홍보팀, 현충일을 맞아 롯데 선수들이 태극기가 달린 밀리터리 유니폼을 입었다고 설명하면서.

/사직=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